

# 녹색성장의 기초를 만드는 ESCO

**ESCO사업**은 지난 1993년 이후 15년간 1조487억원의 자금이 지원되었고 연간 3937억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0불을 넘나드는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까지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ESCO사업을 통해 절약되는 자원은 또 다른 자원개발의 효과를 톡톡히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개발하여 확보한 자원의 물량 지표인 자주개발률은 4.2%로 매우 적은 편으로 절약을 통한 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국가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신 고유가 현상은 과거와는 달리 수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의 고갈이라는 근본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만큼 일시적으로 진정된 석유 위기의 문제는 언제든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자원의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자원민족주의의 확산으로 에너지 자원 국유화 경향이 일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절약입니다.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에너지절감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효율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 전체의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06년도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수송용과 가정용의 경우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반면, 산업부분의 1인당 에



이범용 회장

너지소비량은 높은 수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감과 효율 향상뿐만 아니라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개편 등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응하는 최적의 수단 중에 하나인 ESCO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산업은 어떤 형태로든 에너지를 이용하여 사업을 합니다.

ESCO사업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나 산업에 에너지사용량을 합리적으로 줄여서 이익을 창출시키는, 서로 win-win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입니다. 이는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을 돕는 ESCO사업은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R&D와 인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녹색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신재생에너지의 적절한 사용과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는 ESCO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세계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최고의 사업입니다. 우리 협회는 에너지절약형 사회로 전환하는 길목에서 ESCO업계가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우수한 ESCO 사례를 더욱 널리 알리고, 우수한 ESCO기업을 찾아 인증함으로써 ESCO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전세계적인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녹색성장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적합한 미래지향적인 ESCO사업으로 사회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